대구신문

2007년 03월 01일 003면

이명박, 'TK 공들이기' 가속화

대의원·시도당 당직자 표심잡기 잰걸음

한나라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룰에 관한 논의가 진행중인 가운데 유력 대권주자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 측의 대구경북 공들이기가 가속화되고 있다.

지금까지 이 전 시장측의 대구경북 지역 지지도 높이기 전략은 지난 5.31 지방선거 공천결과에 불만인 인사들과 공천에 탈락한 뒤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사람들이 주 타깃이었다면, 최근들어서는 경선투표권을 가진 대의원과 책임당원, 이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선출직, 그리고 시도당 당직자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.

이같은 방향전환은 각 후보간 견해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한나라당 경선준비위원회에서 3월10일까지 경선룰을 확정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.

현재의 당헌·당규대로 경선이 치러지게 될 경우 국민지지도가 높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후보를 결정할 당원들의 표심을 잡지 못하면 경쟁자인 박근혜 전 대표와 격돌이 불가피하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.

지난해 당 대표 선거에서 국민지지도 면에서는 이 전 시장의 측근인 이재오 최고위원이 월등했으나, 선거 결과는 강재섭 대표가 당원들의 지지에 힘입어 역전에 성공한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인다.

여기에 검증론 이후 이 전 시장에 대한 지역내 지지도가 주춤하고, 지지모임인 모 산악회가 지난 27일 선관위로부터 폐쇄명령을 받게 되는 등 지역내 분위기가 심상찮게 돌아가자 다급해진 것이다. 이에 따라 이 전 시장측에서는 부인 김윤옥 여사가 대구경북을 돌며 핵심당원들을 대상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.

이 전 시장의 형인 이상득 국회부의장은 28일 대구시의원과 기초의회 의장단, 도의원 등과 잇따라 저녁을 함께하는 자리를 가지며 이 전 시장 대통령 만들기에 동참을 요청했다.

같은 시간 이 전 시장의 지지모임인 MB팬클럽 연대는 대구 크리스탈 호텔에서 회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경북지부 발대식을 여는 등 잰 걸음을 하고 있다.

지역 한나라당 한 관계자는 "결국은 당원들의 표심, 결집력이 높은 대구경북 당원들의 표심이 후보를 결정짓게 된다"며 "경선이 임박해 질수록 후보들의 공략이 드세질 것"이라고 발했다.

김상섭기자 kss@idaegu.co.kr